



김민석 국무총리,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

【관련 국정과제】 84.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구축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(월)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.
 -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다.
- 김 총리는 “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,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” 말하며,
 - “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부탁한다”고 말하였다.
 -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,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,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,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.
- 김 총리는 “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”고 말하며, “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석선영 (044-200-2293)
		담당자	사무관	황연 (044-200-2294)